

01 교회소식

온 누리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미국 CBA 국제 컨벤션 참가 등 교회 소식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축복받은 불가리아 기독교 TV 방송 대표의 서신.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1)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차원까지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늘 함께하며 도우시는 주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기관장 교육' 말씀과 국제 트림펫 경연대회 주니어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김다영 자매 소식.

04 간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걱정 없어요”

만민을 만나 치료받고 회복한 가정이 된 말레이시아 후안홍 집사와 성령의 역사로 맹장염을 치료받은 이기숙 권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47호 2018년 7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림북, 미국 CBA 국제 컨벤션 참가



전 세계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림북'(www.urimbooks.com)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된 CBA 국제 컨벤션에 참가했다.

미국 기독교서판매인협회인 CBA(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는 전 세계 150개국 1,400여 개의 기독교출판사, 서점 등이 소속된 연합 단체이다. 매년 컨벤션을 개최하여 전 세계에서 온 기독교출판, 유통, 홍보 관련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업무 협약을 이루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우림북은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집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주옥같은 저서들을 국내외 유명 서점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담긴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천국』, 『지옥』, 『영혼육』 등 현재 112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61개 언어로 번역해 486종을 발간했다. 전자책도 58개 언어, 522종을 발간했다.

이번 우림북 부스에는 40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비롯해 영어 38종과 스페인어 24종의 저서를 전시했으며, 이 목사의 명서들을 소개하는 영상 및 우림북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이에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업체들과 업무 협의 및 뉴질랜드의 만나 서점, 네덜란드의 3.16 출판사, 루마니아의 알파 오메가 출판사와 책자 공급 및 출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해외에서 온 편지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와 환자기도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불가리아 기독교 TV 방송은 2개의 위성방송을 통해 EU, 중동, 중국, 북아프리카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으며, 최근 불가리아 전국을 커버하는 대형 케이블방송에도 진입했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에서는 매주 3회 이재록 박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 딸(멜 벨레프)이 불가리아어로 번역하고 제가 더빙을 하는데, 딸은 이 박사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설교를 방송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저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특히 수많은 시청자가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사모함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와 문제해결을 받았다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이 박사님께 기도받은 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 간증들을 들을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시청자들이 성결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기에 이 박사님의 저서들도 출판하여 보급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모든 것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공연, 질서정연한 성도들,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다니엘철야와 금요철야예배의 충만함, 목자와 성도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어떠한지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주며 성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이 박사님의 설교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 박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8. 6. 18.

‘블라고베스트 벨레프’ 불가리아 기독교 TV 방송 대표



하나님의 사랑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차원까지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5단계에서도 깊은 차원입니다. 곧 온 영의 완성을 이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믿음의 분량』 책자 참조).

온 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차원을 바로 알고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 공의가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온전히 하나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공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곧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차원의 ‘사랑’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여 나뉘어야 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먼저 그에게 좋은 땅을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고, 자기가 양보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지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 위에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야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도 결국 사람 편에서의 최고일 뿐 하나님의 사랑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원일까요?

1)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요일 4:16, 19 ; 롬 5:8).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근본의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서 홀로 우주 모든 공간에 가득히 존재하셨습니다(출 3:14 ; 요 1:1 ; 요일 1:5).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고,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

을 계획하십니다. 먼저는 스스로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면서 동시에 차원이 다른 ‘하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한 대로 하나의 하늘이 아닌 여러 개의 하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왕상 8:27 ; 시 68:33 ; 고후 12:2).

그 후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행 13:33 ; 히 5:5 ; 요 15:26 ; 갈 4:6).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인간 경작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역할은 다르지만 마음과 생각, 능력이 하나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책자 참조). 그리고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그룹 등 영적인 존재는 물론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 루시퍼라는 존재를 허락하셨고, 배신의 크나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루시퍼의 반란을 허락하셨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루시퍼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배신하고 타락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다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공의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아픔은 참으로 크셨지요(창 1:2).

이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므로 또다시 배신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 인간 경작이 시작되면서부터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이 시작되면 서부터 인생들은 급속도로 죄에 물들어 갔지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더 큰 희생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생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큰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희생을 감수하신 것은 그 ‘고통의 크기’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수없는 배신을 겪으시면서도 진노하여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참고 또 참으시며 오히려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지요. 그러면서도 원하신 것은 오직 인생들이 예수 그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차원인 온 영(살전 5:23)의 완성을 이루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며 닦아가
사랑과 공의를 적절히 조화시켜 온전한 사랑의 완성을 이뤄야 합니다”

- 기관장 교육 '사랑' 중에서

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녀로 나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사는 것이었지요.

2) 끝까지 기회를 주며 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로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 곁에서 변화될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하셨지요.

그 중심을 아신다 하여 차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돈 궤까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돈궤의 돈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악을 선택했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정한 후 최후의 만찬 자리에 나타나 여느 때처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해도 가룟 유다 본인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마 26:21~25).

가룟 유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고통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갈 그를 긍휼히 여겨 탄식 하셨지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배신할 영혼이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다 해도 끝까지 참고 믿어주며 견뎌냅니다. 그럼에도 끝내 사망의 길로 간다 해도 미워하거나 서운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지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의 영혼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여기에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미움이나 서운함을 품지 않고 더 나아가 끝까지 기회를 주며 더 좋은 것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 영의 완성을 위해 닦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2. 사랑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공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 말씀했지요. '공의'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또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정하신 이 공의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37편 6절 후반절에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 시리로다" 말씀한 대로 정오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만천하가 그 빛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반면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여겨집니다.

1)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정하신 법칙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

라"(창 1:3) 말씀하시자 근본의 빛이 둘러짐으로써 피조물들 가운데 질서와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구뿐 아니라 앞으로 창조될 태양과 달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무수한 별 사이의 질서와 원칙도 이 첫째 날에 세워졌지요. 이처럼 우주 공간뿐 아니라 지구상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령,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한다' 등의 공의의 법칙이지요.

천지 창조 여섯째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의 몸이 일정한 법칙대로 운영되도록 공의 가운데 질서와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공급해야 활동하고 때를 따라 잠을 자 주어야 하며, 몸의 어떤 분야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 등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의 공의에 맞도록 살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이루는 동안 필요한 공의

구원과 심판, 응답, 축복, 징계와 재앙 등은 인간 경작을 이루는 동안 필요한 공의입니다.

가령,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진리 안에서는 이러한 공의의 법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 16:18),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등 죄와 그 결과에 대한 공의의 법칙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법칙 중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 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아는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기 쉬우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요. 공의는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아서 어떤 일의 원인을 공의에 대입해 보면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의 결과를 공의에 대입해 보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의의 법칙이라는 것이 직물의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영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담긴 법칙을 더 정확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해 법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할 때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그 당시의 마음과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죄인의 마음 중심과 그의 처지와 사정까지 알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사형을 면할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공의를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과 선의 차원이 깊느냐에 따라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의를 잘 아는 만큼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잘 찾아낼 수 있지요. 따라서 공의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들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해하여 마음에 담아야 하지요. 이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 플러스 공의가 이루어질 때 율법을 완성하는 온전한 사랑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저의 친정집은 우상을 섬기는 데다 가족 간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자주 맞았을 때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요. 결혼 후 남편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도 받고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제 뜻과 달리 남편과 자주 다투어 집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2010년 12월, 루카이청 집사님한테 만민중앙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만민뉴스'와 '권능' CD를 보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 뒤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낯선 곳에서 그들과 함께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바로 만민중앙교회였지요.

저는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루카이청 집사님의 소개로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의 정드보라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을 밝히 전해주는 성결의 복음을 들으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후안홍 집사 (41세,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또 용을 비롯한 갖가지 모양의 형상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집에 돌아와 모두 치워 버렸지요. 그러자 마음이 활기차고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믿음의 분량』, 『지옥』 등을 서로서로 돌려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GCN방송을 설치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하였지요.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두통은 물론, 우울증과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하고, 다툼이 그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지요. 감사하게도 2014년 8월에는 저희가 거주하는 사라왁주 시부 도시에 있는 루카이청 집사님의 사업터 건물에 예배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성도가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되는 교육과 수련회, 특별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기회만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결의 복음을 통해 제 삶은 변화되었고,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남편의 사업터 한 코너에 300여 권의 당회장님의 저서를 전시하고, 도서전에도 참여하여 당회장님 저서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귀한 목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맹장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이기숙 권사 (73세, 1대대 1교구)

2018년 3월 23일(금) 저녁, 복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허리 쪽이 감전된 것 같았고 두통과 열이 있었으며, 물을 조금만 먹어도 헛구역질이 나고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었지요.

다음날인 24일(토),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맹장염이었으며, 터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치료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늘 갈급해 생명의 말씀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으로 인도해 달라고 소원 기도할 때만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 안에서 당회장님을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아왔지요.

저는 25일(주일) 아침, 당회장님께 기도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시 당회장님께 기도받는 순간, 가슴과 배에 마치 선풍기를 틀어놓은 듯 시원

한 바람이 불어 뺨 뚫리는 것 같았고 복부 통증도 사라져 곧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28일(수)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맹장염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 외에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 실수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딱딱한 물건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것입니다. 그 뒤로 헛구역질이 나고 온몸이 굳어오는 느낌이 들어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MRI 촬영 결과, 의사는 뇌에 피가 약간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이내 통증이 사라졌고, 며칠 후 병원 검사에서는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권능의 기도로 성도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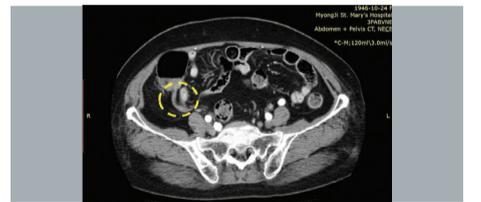


이기숙 권사와 딸 신은주 집사.

초음파 & CT 촬영



▲ 기도받기 전 : 충수돌기염의 원인이 되는 분석이 보이고 있으며 주변으로 염증성 소견이 심함.



▲ 기도받은 후 : 염증으로 부었던 충수돌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이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경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주부토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락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352-8336